

연극·뮤지컬

■ 개요

2015년 공연예술계는 안팎으로 고단한 한해를 보냈다.

6월 온 나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위협에 얼어붙으면서 연극을 비롯한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하반기에는 '예술검열' 논란으로 예술가들이 공공기관과 마찰을 빚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의 무대 나들이가 이어져 대중을 극장으로 끌어들이었다.

■ '메르스' 직격탄 맞은 공연계

6월 전국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은 메르스 여파에 공연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메르스 전염 우려로 극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이 '기피 시설'로 인식되면서 관객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특히 관객 감소는 중소 규모 연극에 집중됐다.

온라인 티켓 예매사이트에서는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인 5월 마지막 주에 비해 6월 첫째 주 연극 예매율이 40% 포인트 가량 떨어졌고, 예매표 취소도 이어졌다. 연극단체로부터 메르스 피해 상황을 접수한 서울연극협회 담당자는 당시 "극장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관객이 거의 반 토막 났다"고 전했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의 타격이 심했다. 당초 7월 개막하려던 약극 '불효자는 읍니다'는 공연을 8월로 미뤘다. 약극 특성상 노인 관객이 많은데 메르스로 관객 수가 줄어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6월 초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예정됐던 가족뮤지컬 '일곱난쟁이'도 관객 안전을 위해 공연을 취소했다. 경기도권에선 휴교 조치 등으로 단체 관람이 많은 아동극 공연 취소가 잇따랐다.

2014년 세월호 사태로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가슴앓이를 했던 연극계는 연이은 악재에 속을 태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르스로 위축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300억원을 투입, 공연 티켓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더 주는 '1+1' 정책을 시행했다.

■ '예술검열' 논란으로 진통

공공기관의 예술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극인들이 릴레이 시위에 나서는 등 예술인들의 항의와 반발이 이어졌다.

9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창작 산실 우수작품 제작 지원자 등을 결정하면서 심사위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특정 연출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연극협회는 "문예위가 문화예술계를 사전 검열해 길들이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입장 표명과 문예위 해체를 촉구했다. 대학로X포럼, 원로 중견연극인, 검

열을 거부하는 극작가 모임, 서울연극협회 소속 연극인 979명은 문예위의 문화예술 검열 논란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서명부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10월에는 공연예술센터가 연극 '이 아이'가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공연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로에서는 '예술검열'에 항의하는 연극인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다.

결국, 문예위는 11월 논란에 휩싸인 유인화 한국공연예술센터장과 간부 2명의 직무를 정지했다. 더불어 공연예술센터장 직위를 폐지하고 센터가 기존에 관리하던 아르코예술극장 등을 문예위 사무처가 직접 맡도록 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문예위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문화예술계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정 연출가를 배제한 국립극원의 공연 프로그램에서도 예술가들의 출연 거부와 공연 취소가 이어졌다. 급기야 해당 프로그램 예술감독 김서령씨는 국립극원이 "예술감독을 배제한 채 프로그램을 변경,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퇴했다.

■ 스크린·TV 스타 잇따른 연극 무대 나들이

TV와 영화에서 대중을 사로잡은 스타들의 공연 무대 출연이 잇따른 한해였다.

배우 공효진이 연극 '리타 Educating Rita(에듀케이팅 리타)'로, 드라마 '미생' 이후 드라마와 영화를 중흥무진하는 배우 강하늘이 연극 '해롤드 & 모드'로 연극 무대에 데뷔했다. 이 배우들의 티켓 파워에 힘입어 두 연극은 공연 두 달도 안 돼 누적 관객 2만 명을 돌파했다.

중견 배우 박정수도 연극 '다우트'(Doubt)로 데뷔 43년 만에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했고, 배우 노주현은 연극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로 40년 만에 연극 무대에 다시 섰다.

배우 이성민을 비롯해 1천만 영화 '암살'에서 폭탄 전문가 '황덕삼'으로 활약한 최덕문, 2014년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미생'에서 영업3팀 오상식 과장(이성민)의 옛 상사 '김선배' 역으로 강인한 인상을 남긴 민복기, 영업3팀 천과장 박해준, 영화 '사도'에서 중년부터 노년까지 나이를 초월한 연기를 선보인 '영빈' 전혜진 등도 '극단 차이무'의 20주년 기념작에 차례로 등장해 관객들과 만났다.

뮤지컬도 예외는 아니었다. 배우 주진모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유연석은 '벽을 뚫는 남자'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한 황석정은 '천변살롱'으로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했다.

■ 서울종합예술학교 김효경 교수 별세

서울시뮤지컬단 단장을 지낸 서울종합예술학교 김효경 교수가 2015년 1월 7일 최장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김 교수는 1975년 연극 '햄릿' 연출로 무대 인생을 시작해 뮤지컬 '애니',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무용극 '강강술래', 창극 '심청전' 등 40여 년간 다양한 장르에서 100편 이상의 작품을 연출했다.

2010~12년 서울시뮤지컬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뮤지컬 버전인 '투란도(投蘭圖)'를 연출, 제17회 한국뮤지컬대상 연출상을 받았다. 1994년 국립극장이 주관한 '올해의 좋은 연출가상', 2010년 근정포장, 2011년 한국 문화산업대상 국가브랜드위원장상 등을 수상했다. 2013년 1월부터 서울종합예술학교 연기예술학부 학부장을 맡았다.

무용

■ 개요

2015년 무용계에서는 현역 은퇴를 앞둔 발레리나 강수진을 비롯해 고별, 은퇴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다양한 시도로 주목받은 국립무용단은 다른 장르와의 협업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고, 유럽에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전파했다. 현대무용가들도 현대무용의 본거지인 독일 등 유럽 무대에 초청받아 호평받았다.

'한국춤의 거목' 우봉(宇峰) 이매방 명인 등 한국무용가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 아듀! 강수진...무용수, 무용단 잇따른 고별무대

2016년 현역에서 은퇴하는 48세의 발레리나 강수진이 11월 한국에서 고별 무대를 열어 고국 관객들과 작별했다.

강수진은 2016년 7월 22일 독일에서 예정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오네긴'을 끝으로 30년 발레리나 인생을 마감한다. 그는 정식 은퇴에 앞서 고국에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이 은퇴작을 먼저 선보였다. 한국에서 선 마지막 무대였다.



▲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오네긴' 프레스 리허설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의 민간 직업 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SBT)의 김인희 단장도 10월 '창단 20주년 기념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무용수로서 공식 은퇴했다. 52세의 나이로 무용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40년 만이다.

모나코 왕립발레학교를 거쳐 유니버설발레단, 국립발레단

의 수석 무용수를 지낸 김 단장은 10년 전인 SBT 10주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정식 발레 무대에 서지 않고 경영에 전념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한국 최초의 현대무용단인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도 12월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을 끝으로 해단했다.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은 '한국 현대무용의 대모'로 불리는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이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간 차원의 창작활동과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1975년 창단한 단체다.

이화여대 무용과를 주축으로 한 이 단체의 활약으로 현대무용이 전국 대학에 급속도로 보급됐다. 이곳에서 초기 현대무용 작품 대부분이 나왔고, 현재 한국 현대무용계를 이끄는 수많은 현대무용가가 배출됐다.

■ 국립무용단 현대로, 세계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한국무용으로 호평받은 국립무용단은 2015년에도 전통의 재해석, 다른 장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새롭고 파격적인 시도들을 계속했다.

민속무용과 궁중무용, 종교제례, 불교무용까지 의식을 위한 모든 종류의 한국 무용을 망라해 현대적으로 풀어낸 '제의'(Ceremony 64), 수석무용수 최진옥이 안무하고, 영화감독 임필성이 연출한 '적(赤)', '암살', '도둑들' 등 유명 영화의 음악감독으로 활약해온 음악가 장영규가 처음으로 무용 연출에 도전한 '완월(玩月)', 한국무용 '단(壇)'과 '묵향(墨香)'에서 세련된 연출로 호평받은 디자이너 정구호가 다시 한 번 연출한 '향연' 등 신작들을 쏟아냈다.

더불어 2014년 초연한 '회오리'(VORTEX)로 11월 프랑스 남동부 도시 칸의 루이 루미에르 극장에서 열린 '2015 칸 댄스 페스티벌' 개막공연을 장식하며 세계 관객과도 만났다.

칸 댄스 페스티벌은 1985년 창설된 세계적 무용 축제다. 한국 무용단의 작품이 초청된 것도, 국립무용단이 해외 무대에 출연료를 받고 작품을 선보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회오리'는 핀란드 출신 현대무용 안무가 테로 사리넨이 안무한 작품이다. 국립무용단이 창단 52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안무가와 협업해 만들었다. 한국무용 고유의 우아한 선과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안무를 매력적으로 살려 호평을 받았다.

■ 유럽으로 뻗은 한국 현대무용

현대무용가 안은미는 9월 '현대무용의 성지' 프랑스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파리시립극장) 대극장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공연했다. 그는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사심없는 댄스',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 3부작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호평받았다.

국립현대무용단의 대표작 '불쌍'(But-ssang) 등도 8월 독일 최대 현대무용축제 '탄츠 임 아우구스트'(Tanz im August)에 공식 초청됐다.

'불쌍'과 함께 안무가 이재영을 주축으로 하는 무용단 '시나브로 가슴에'의 '이퀼리브리엄'(Equilibrium), 안무가 정금형의 '7가지 방법'도 함께 초청받았다. 이 축제에 한국 무용단이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